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2시 세인트루이스 노인회 노인잔치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그래서 너 만을 위한 섬을 만들어라.

서둘러 노력하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불순한 것은 모두 불어 날려 보내고
 죄악의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늙음과 죽음이 있는
 이 생애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Make therefore an island for yourself. Hasten and strive. Be wise. With the dust of impurities blown off, and free from sinful passions, you will be from birth that must die, you will be free from old age and ends in de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부처님 설법의 목적은 교화, 전법 통해 교화 완성되므로 중생제도 위한 전법 없으면 부처님의 은혜 어찌 갚으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아직 마가다의 정각도량에 계실 때의 일이다. 보리수 아래서 명상에 잠긴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얻은 이 법은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법은 번뇌가 사라지고 미묘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치를 분별하여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미묘한 법을 사람들을 위해 설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만 하게 된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리라. 수고로이 설법하지 않으리라.”

부처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자 세상을 다스리는 범천왕(梵天王)은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래가 출현하신 것을 설법을 하기 위함인데 부처님이 침묵하면 이 세상은 악법이 횡행하여 눈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천왕은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설법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청했다.

“원컨대 여래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중생들 가운데는 훌륭한 근기를 가진 자도 있사운데 만일 그들도 설법을 듣지 못한다면 진리의 눈을 잃게 되고 버려진 아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비유하면 연꽃이 진흙 속에서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이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근기는 이미 익었으나 생로병사에 시달려 설법을 듣지 못하고 그만 죽는 자도 있습니다. 어찌 가엾다 하지 않겠나이까.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그 때이옵니다.”

부처님은 범천왕이 권청하는 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범천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설법하여 주기를 간청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열 터이니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법의 요지를 잘 분별하여 넓은 믿음을 버리도록 하라.”

범천왕은 부처님이 설법을 결심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중생들은 바른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을 기뻐하며 천상으로 돌아갔다.

〈중일아함〉 제 10 권 ‘권청품(勸請品)’ 제 1 경

포교란 무엇인가. 법당에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절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 절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포교는 첫째 아직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未信者)을 교화하여 진리를 믿는 사람(決信者)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어리석음을 진리하고 믿는 사람(迷信者)을 교화하여 올바르게 믿는 사람(正信者)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아직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淺信者)을 교화하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深信者)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한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불교교단에 총무원이 있고 본사가 있는 것은 이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절을 짓고 법당을 장엄하는 것은 설법과 교화를 위해서다. 학교나 유치원, 병원과 복지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도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방송국을 세우고 신문을 만드는 것도 포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다.

〈화엄경〉 ‘전법계’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포교활동에 나서야 하는가를 깨우쳐준다.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억겁을 지나고 / 몸으로 의자를 만들어 부처님을 모신다 해도 / 만약 전법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하지 못하리라.(假使頂戴經盡劫 身爲床座遍三千 若不傳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

본마음과 분별심

‘참 나’로서의 본 마음은 불생불멸

거짓 마음에 불과한 분별심은 윤회의 주체이자 생멸의 원인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마음이고, 둘째는 거짓 마음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다, 남이다, 맛다, 틀리다, 좋다, 싫다고 구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은 모두가 거짓 마음에 불과하다. 본래 나의 마음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참 마음인 줄 안다. 거짓 마음은 할 줄 아는 게 딱 한가지이다.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선과 악을 가르고 이익과 손해를 가르며 나와 남을 가르는 일에 몰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별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능엄경〉에서는 이러한 거짓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다. 도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도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과 밖, 중간 그 어디에도 이 마음은 없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마음의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답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마치 허깨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꿈이, 물거품이, 그림자가, 이슬이, 번갯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거짓 마음인 분별심은 인연 따라 느닷없이 생겼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까닭에 정해진 처소가 있을 수 없다. 존재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 이 허망한 마음을 고집하여 ‘나’로 삼는 까닭에 윤회가 거듭 된다. 인과를 주고받고, 받고 주면서 끊임없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는 것이다. 결국 이 허망한 분별심이야말로 윤회의 주체이며, 생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다 하지만, 사실 마음은 닦을 것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닦을 수는 없는 법이다. 허공을 닦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다만 쉬어줄 수 있을 뿐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별심을 쉬어주는 것, 이야말로 참다운 마음공부이다. 그래서 ‘쉬는 것이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심을 쉬면, 본마음이 드러난다. 파도가 쉬면 본래의 물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본래의 맑고 평평한 바다에는 온갖 모습이 있는 그대로 찍힌다. 파란 하늘은 파랗게, 하얀 구름은 하얗게, 등근 것은 등글게, 모난 것은 모나게,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각자 나름대로의 분별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색안경을 벗어던지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본마음은 변화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려서 섬진강을 바라보던 성품이나, 나이가 들어서 섬진강을 바라보는 성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몸은 쭈그러져 늙었을지언정, 섬진강을 바라보는 성품 그 자체는 결코 쭈그러들거나 늙지 않았다. 또한 좌우를 돌아본다고 하자. 그럴 때 얼굴이나 눈은 돌아볼지언정, 보는 성품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듣는 성품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종소리를 듣는다 하자.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생겨났다가 이윽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은 종소리와 함께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종소리는 생멸이 있지만, 종소리를 듣는 성품에는 생멸이 없다. 나아가 몸은 잠이 들어도 이 성품은 잠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꿈에서도 보고 듣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듣는 성품이나 보는 성품이나 모두 한 가지로 본마음이다. 이러한 ‘본마음 참 나’로서의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항상 하며, 즐겁고, 불성인 ‘나’가 있으며, 청정하다. (常樂我淨)

-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유럽불교 중심으로 떠오르는 ‘프랑스’

“마음 평정 통한 행복 추구” 엘리트 매료

최근 프랑스의 일간 <르 피가로>는 “프랑스인 가운데 독실한 불교신도는 45만~60만 명이고 불교와 가깝다고 느끼는 동조신도도 500만 명에 이른다”면서 “이제 프랑스 안에서 불교는 60만 신도를 가진 유대교와 동등한 규모이며 이럴 경우 프랑스 내 제5의 종교가 된다”고 보도했다. <2251호 참조> <르 피가로>의 분석처럼 프랑스는 이미 유럽불교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불교 핵심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급격한 프랑스 불교 위상강화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일까.

프랑스 불교의 급성장은 엘리트 중심의 종교인구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순응적인 일반국민보다는 논쟁을 좋아하고 문제해결을 원하는 식자층과 삶에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 인구가 불교를 종교로 선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불교가 식자층을 매료시켰고,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중상류층 가정을 끌어들이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파리 길상사 주지 무이스님도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유일신 종교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새로운 종교적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분석은 <르 피가로>에 소개된 개종사례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프랑스 지상파 TV에서 불교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는 카트린 베리씨는 고등학교 시절 불교로 개종했는데 “가톨릭은 너무 피상적이고 제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 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인 방식으로 종교생활을 하지만 프랑스 본토인의 불교는 통상 엘리트들을 위해 마련된 가르침으로부터 이로움을 얻는다”고 평가한다. 엘리트 불교의 모습은 프랑스 불교역사의 시작인 16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개척을 진행하면서 만난 불교는 초기부터 학문적 연구에서 출발했다. 18세기 볼테르나 몽테스키외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 특히 19세기에 들어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경전을 불어로 번역했던 ‘어젠 뷔르누프(1801~1852)’ 같은 프랑스 불교학자들의 연구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프랑스 엘리트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과 유일신 종교의 엄격하고 교리중심적인 종교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 불교는 대승불교를 더 선호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과 미얀마 등지에서 이주해 온 아시아인들에 의해 남방불교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프랑스불교의 활성화는 대승불교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선(禪)사상과 티베트 불교는 프랑스인들의 정신세계를 매료시켰다. 일본 선불교의 다이센 데쉬네루 스님과 베트남 접현종(임제종의 한 유파)의 틱낫한 스님,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스님과 칼라 린포체 스님 같은 엘리트 불교지도자들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대승불교의 인기는 한 층 더 상승했다. 물론 한국 불교도 승산스님이 파리에 관음선원을 설립하면서 선불교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여론조사는 프랑스 불교의 향후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프랑스불교연합’은 최근 프랑스에서만 15만 명의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했으며, 1997년 여론조사에서는 약 5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도 <르 피가로>의 지적처럼 60만 명의 불자와 150여개의 불교센터가 유지되며 급팽창하고 있다. 이와함께 1995년에 설립된 유럽불교대학은 많은 불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명문대학인 소르본느 대학 종교철학부에서도 매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강좌가 열린다.

스리랑카 불교지도부, ‘방광’보고 모인 신도들 질타

“佛光 보고 싶으면 가르침 배워라”

스리랑카의 부처님 상에서 ‘신비한 광선’이 뿜어져 나온다(放光)는 소문이 퍼져 100 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사찰과 부처상 앞으로 모여 심각한 교통마비 현상을 빚었다고 인도 PTI 통신이 지난 2 일 보도했다. PTI 통신은 “그 혼란은 가네쉬(Ganesh, 시바신과 빠르바띠신의 아들로 코끼리의 머리를 한 부와 지식을 상징하는 신)가 우유를 마셨던 날을 연상시킬 만큼 이었다”면서 “현지 언론들이 모 사찰 불상의 상호, 작은 구멍에서 신비한 광선을 발산했다고 보도한 것이 화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파가 몰리자 스리랑카 불교지도부의 한 스님은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그 신비한 현상이 착시현상(optical illusion)”임을 밝혔다.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당신들이 부처님의 광선을 보기를 원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해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교통정체현상만을 유발시킬 뿐”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광선’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들로 인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인근 교외지역은 2 일 늦은 밤까지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계속됐다. 또 다른 스님인 피티두위 시리담마 스님이 현장에 나가 “불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외쳐댔지만 100 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부처님 일대기: 아나타핀디카와 기원정사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깨달음을 얻은 뒤 고향에 간 중국의 마조선사(709~788)는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다고 한다. 마조선사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고향 카필라바스투에 간 부처님은 반대로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부왕 슛도다나왕이 귀의했고, 사카족 청년들도 대거 출가했다. 7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승단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 후 부처님은 마가다국에 돌아가 라자가하 교외의 한림(寒林, 시체를 화장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과 자웅을 겨루던 국가가 코살라국(왕의 이름은 프라세나지트)이다. 카필라바스투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있었다. 코살라국의 수도는 사밧티(사위성, 쉬라바스티, 지금의 사헤트 마헤트).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장자(長者, 상인)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나타핀디카(범어 수닷타). ‘과부나 고아 등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잘 돌봐준다’고, ‘외로운 이를 돕는 사람 아나타핀디카’(給孤獨으로 한역)로 흔히 불렸다. <사분율> 제 50 권에 의하면 그는 “언제나 기꺼이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했다. 급고독식(給孤獨食)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별명만으로도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아나타핀디카는 1년에 한 번씩 일을 위해 쉬라바스티에서 라자가하로 갔다. 그가 무슨 일로 매년 라자가하(왕사성)를 찾았는지 모른다. 다만 <사분율> 제 50 권에는 “전업(田業)이 있어 해마다 사위성에서 왕사성으로 갔다”고 적혀있다. <출라박가> 6:4 와 <쌍웃타니까야> 10:8 등에 따르면 라자가하에 도착한 아나타핀디카는 매형(주인도 상인으로 장자임) 집에 머물렀다. 그 전날 그 친척은 부처님이 머무는 숲에 들렀다 수행자들의 태도에 감동돼 그곳에 60 채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며칠 뒤 부처님과 비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공양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많은 수행자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상인의 집안은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한 그날부터 분주했다. 부처님이 오시어 공양하기로 한 전날, 하인들이 쌀, 장, 과자 등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느라

매형의 집은 몹시 어수선했다. 올 때마다 환영 받았던 아나타핀디카가 매형으로부터 이렇게 홀대받기는 처음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나타핀디카가 놀라서 물었다. 대답이 없자 아나타핀디카는 다시 “결혼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빔비사라왕을 맞이하는 것입니까?”하고 재차 물었다. “아닐세.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자들이 공양하러 온다네.” 말을 들은 아나타핀디카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방금 부처님이라 하셨습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저도 당장 그분을 뵈러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된다네.” 매형은 통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며 덧붙였다.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아나타핀디카는 가슴이 부풀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새벽에 서둘러 한림(죽림정사라 한 경전도 있음)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공포가 엄습했다. 길을 캄캄하고, 날이 밝으려면 땅이 기다려야 했다. 아나타핀디카는 자신이 매우 약한 존재라고 느꼈다. 그리곤 “세상에는 빛이 사라지고,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겁을 먹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저 멀리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부처님이 천천히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나타핀디카를 본 부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앉기를 권했다. 바라나시 교외에서 부처님을 본 야사처럼 아나타핀디카도 즉시 기쁨을 느꼈다. 가르침이 알알이 가슴에 박혔다. 먼지와 때를 여의고 새로운 눈을 떴다.



사진설명: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기원정사를 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 바르후트 난간 기둥 조각으로, 인도 풀카타 인도박물관 소장.

새로운 세계를 맞본 아나타핀디카는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를 연발했다. 그리곤 자신을 재가신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날 아침 매형의 집에서 다시 부처님을 만난 아나타핀디카는 자신의 고향인 코살라국의 수도 사밧티로 와줄 것을 부처님에게 청했다. 사밧티는 기원전 6세기 말 갠지스 강 유역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발전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다. 약 7만 가구가 살았던 사밧티는 상업의 중심지로 아나타핀디카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의 본거지이자, 마가다국 수도 라자가하와 더불어 고대 인도를 대표하는 2대 도시였다. ‘사밧티’라는 이름은 ‘사르바밧티’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 사밧티는 튼튼한 성벽과 10m 가 넘는 높은 망루로 보호받고 있었다.

코살라국으로 돌아간 아나타핀디카는 부처님이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여러 날 고생한 끝에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코살라 왕위 계승자인 제타 태자가 소유한 공원이 그곳이었다. 제타 태자를 찾아가 전후사정을 말하고 팔라고 했으나 태자가 거절했다. 욕심각심 하다 태자가 “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원을 황금으로 덮으면 팔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아나타핀디카는 수레에 황금을 싣고 그곳을 덮기 시작했다. 금화로 덮이지 않은 곳은 정문 근처의 작은 공간뿐이었다. 뒤늦게 보통 거래가 아님을 안 제타 태자는 황금이 깔리지 않았던 문 옆의 땅을 공짜로 쥐, 그곳에 문을

지키는 집을 지었다.

아나타핀디카는 승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타의 숲을 정리했다. 아나타핀디카는 “넓은 테라스를 설치하고, 문을 세우고,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웠다.” 이 곳에 세워진 사찰이 바로 불교역사상 유명한 기원정사(祇園精舍)다. 아나타핀디카가 제타 태자의 숲에 세웠다고 해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으로도 불린다. <현우경> 제 10 권 ‘수달기정사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후일 이곳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기수급고독원에서 설해졌다”로 시작되는 모든 설법이 여기서 이뤄졌고, 근 30여년을 이곳에서 부처님은 보냈다. 물론 죽림정사, 니그로다 정사 등지를 왕래 했지만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짧은 시간에 부처님과 승단은 머물 수 있는 세 곳의 원림(園林. 정사. 아라마)을 얻었다. 라자가하, 카필라바스투, 사밧티에서. 곧 다른 상인들이 아나타핀디카의 분을 받았다. 줌나 강변의 코삼비 출신 은행가 세 명은 부처님이 사밧티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타의 숲으로 가르침을 들으러 왔고, 부처님을 자신들의 도시로 초대했다. 세 은행가는 코삼비에 승단을 위해 각각 원림(園林. 아라마)를 만들었다.

한편 상인들이 기부한 정사나 아라마는 그들에 의해 유지됐다. 빔비사라왕은 즉립정사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인들을 고용했다. 그들만으로도 하나의 마을이 생길 정도였다. 그렇다고 수행자들이 호화롭게 산 것은 아니었다. 공원의 규모는 컸지만 시설은 소박했고, 오두막 안은 간소하게 꾸며졌다.

아라마들이 생겼다고 비구들이 이곳에서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보냈다. 머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새로운 고통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구들은 비가 오는 우기(雨期)에도 여행을 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다. 특히 자이나교도들이 그랬다. 야생생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우기 동안에는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전통이 생겼다. 오늘날의 안거(安居)가 이것이다.

● 아나타핀디카의 죽음

기원정사를 건립해 부처님께 기증한 아나타핀디카는 불전(佛典)에 여러 번 나온다. 무엇보다 아나타핀디카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목된다. <맛지마니까야> (143)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한 초기 교단의 이원성(二元性)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출가자를 위한 것과 재가자를 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나타핀디카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리풋타와 아난다가 문병 갔다. 사리풋타는 ‘초연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죽음을 멀리하려고 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아나타핀디카에게 “감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외적 세계와 집착을 매개로 접촉하게 되면 윤회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이를 들은 아나타핀디카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부처님과 명상하는 수행자들을 시봉했지만,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듣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사리풋타가 “이런 가르침은 일반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나타핀디카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을 가진 사람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얻을 만큼 성숙하여 욕망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니르바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고 강하게 말했다. “말을 마친 아나타핀디카는 그날 밤 죽었다”고 <맛지마니까야> 는 전하고 있다.

재가자로 교단 발전에 평생을 바친 아나타핀디카. 죽으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신봉하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선시 감상:

반야

천동여정(天童如淨, 594~657)

온 몸이 입이 되어 허공에 걸려

동서남북 바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바람 따라 반야를 노래하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법회소식 NEWS

- 9월 10일 2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는 세인트루이스 노인잔치 로 대신합니다. 2째주에 있는 인등 기도 법회는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법회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매달 3째주 일요일은 “정진옥 박사와 함께하는 교리 탐구” 시간 입니다. 교리 탐구 시간은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집시오.
- 불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처님 제가 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명이 없으신 신도님들 중에서 불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불명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이수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으실 신도님들은 사찰로 연락 주십시오.
- 9월 둘째주 일요일인 9월 10일 2시에 세인트루이스 노인회관에서 세인트루이스 근교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점심공양이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각자 담당하신 음식들을 가지고 12시까지 불국사에서 모여서 다함께 노인회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날 세인트루이스 노인분들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양하실 수 있도록 신도님들의 수고로움 부탁 드립니다.
- 10월 6일 (음력 8월 15일)은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한가위) 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 10월 8일 둘째주 일요일에 “인등 및 영가 인등 기도”와 “송편 만들어 보기”등 다양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 날씨가 좋으면 뒷마당에서 추석 가든 파티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십시오.

- 8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40번 정미생 오은정, 41번 병자생 정다운, 75번 을축생 Christa Yang, 135번 대행 김근환, 165번 밀양후인 박용구 영가, 171번 병신생 김성훈, 172번 을미생 장수연, 173번 임술생 김강희, 174번 무진생 Alice 김은희, 175번 경신생 이옥순, 313번 임인생 정진옥, 314번 정미생 이수정, 315번 무인생 정재훈, 316번 갑신생 정도영.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타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8월 한평불사 동참자: 선법장 윤선정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